

전주시, '도시혁신 전진기지' 되다

역사·문화 다양성 보존·지역공동체로 혁신 이끌어내다

전주시가 대한민국 도시혁신 전진 기지로 불리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그동안 펼쳐온 사회적경제, 공동체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혁신 관련 정책들이 인정 받은 것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되며 도시혁신을 주제로 하는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를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사회혁신 한마당은 전국의 사회혁신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행사다.

앞서 전주는 민선6기 이후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 형성, 사람 중심의 교통,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한 도시재생,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착한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혁신을 이뤘다.



-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 팔복예술공장 전경
- 서학동 예술마을
- 첫마중길 빛의 거리

▲역사·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한 도시재생, 혁신을 말한다

전주시가 전면철거와 재개발의 도시설계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도시안의 오래된 쉼터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 시킨 곳은 문화·경제를 이끄는 쌍둥이 동력이 되어 도시재생을 넘어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대표 사례로 민선6기부터 추진 중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을 손꼽을 수 있다. 선미촌 내 폐공가와 성매매업소 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인권·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을 통해 60년 만에 문화에 술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5년 동안 새 주인을 기다려 온 폐 공장을 예술창작공간과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예술, 과학, 인문학이 결합되어 즐거운 예술 놀이터로 재탄생되어 전주시의 문화플랫폼이 된 팔복예술공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받은 도시 혁신이다.

팔복예술공장은 지난2월 개관한 이후 현재 1만 여명이 다녀갔고 최근에는 문화재생연구를 위한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력포럼(전북권)'이 이곳에서 개최되고 미국대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인사들이 방문하여 글로벌 도시혁신

우수사례 선진지의 진면모를 보였다. 또한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 공실과 노후화된 동네 외관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던 마을을 관광객이 북적이는 마을로 탈바꿈시킨 '서학동 예술마을' 역시 도시 혁신이 가져온 변화다.

또한 기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해 오히려 통행이 불편했던 인도의 폭을 줄이는 대신, 도로 한 가운데 6차선 폭(15~25m)을 가진 명품광장을 조성한 첫마중길과 충경로 차 없는 거리는 사람중심의 도로와 교통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이끌었다.

▲전주형 지역공동체·착한 경제, 도시혁신의 우수사례

전주시는 또한 시민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 되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생산, 소비, 생활, 문화, 복지,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해왔다.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인 온두레 공동체를 259개 선정하여 13억5천 만원을 지원했다.

전주시는 온두레공동체 외에도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주택 문제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인이 지역 내 자원조사와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고 계획하는 원도심 마을계획수립 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공유경제, 지역화폐, 에너지 자립 등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행복의경제학 국제 회의'와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매년 개최하며 사람·생태·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세계와 논의했다.

또한 호혜와 연대 나눔을 실현하는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했다. 1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하여 '소셜마켓'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공동 상담회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구한 사람, 생태, 문화의 도시의 본질적 가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혁신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된 사회혁신 한마당은 전국의 혁신가들 뿐만 아니라 도시혁신을 이룬 시민들이 주인공이다. 앞으로도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 삶의 해답을 찾아

스마트독서동아리 따스아리 김용규 작가와의 만남 가져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스마트독서동아리 '따스아리'는 지난 28일,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의 저자 김용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매일 정치, 경제, 인권, 노동 등 사람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선정해 독서토론을 진행해온 따스아리는 이번에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이 인문학 책의 작가를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날 만남에서 김용규 작가는 숲에 살며 겪는 소소한 일상과 감정부터 숲이 가르쳐주는 철학과 지혜 등을 숲치담백하게 이야기하며 회원들에게 감동을 줬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스마트독서동아리 '따스아리'는 지난 28일,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의 저자 김용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오연화 따스아리 대표는 "바쁘게만 살던 회원들에게 숲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가르침을 전달해 준 숲치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며 회원들에게 감동을 줬다."

한편, 스마트독서동아리 '따스아리'는 업무여량 향상을 위해 매일 한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또한 지역 노인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양영환 전주시의원 감사패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 2동)이 29일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소(지소장 이영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제4회 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대회를 맞아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소는 "양 의원이 평소 장애인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 의원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주점 방화범 '무기징역'

재판부 "영원히 격리해야"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잠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확정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숙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고,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교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의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전주한옥마을, 글로벌 수학여행지로 각광

싱가포르 고교 전주 방문

전주한옥마을이 외국 수학여행단이 방문하면서 글로벌 현충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싱가포르의 명문 래플스 고등학교 29명의 수학여행단이 28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체험학습을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주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여행단은 전주일정 첫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29일에는 전주시청을 방문해 전주시 도시정책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전주시청을 찾은 여행단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시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주한옥마을의 도시재생사례와 RFID(무선데이터통신장치)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사례가 학생들의 토론주제가 되면서 한옥마을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위한 방문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방문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단은 이외에도 전주한지박물관에서 한지 뜨기 체험을 했으며, 비빔밥체험, 한복체험 등 다양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싱가포르 고등학교의 전주 방문은

단순 외국인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명문 고등학교인만큼 향후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확보차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학생들이 받게 되는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향후 그 나라의 미래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온라인플랫폼과 CNN 등의 해외미디어, 영국항공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주 글로벌브랜드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23년 설립된 래플스 고등학교는 리관유 전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싱가포르 지도자와 수재들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전주 일정을 마친 수학여행단은 서울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2월 5일 싱가포르로 돌아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9일 전주시의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안전심사를 앞두고 사업예정지 4곳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계획 현장, 어울림센터 현장, 청년메입대주택 공급사업 현장,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청취했다.

백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여 안전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자인 병원, 덕진구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전달

덕진구에 소재한 대자인병원은 29일 덕진구청을 방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에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자는 의미로 성금 다가온 추운 겨울을 맞아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모든 이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지역의 대표병원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덕진구의 종합병원으로 지역보건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도움이 손길을 준 대자인 병원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내 많은 기관·단체들의 이웃사랑 나눔행사에 참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덕진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